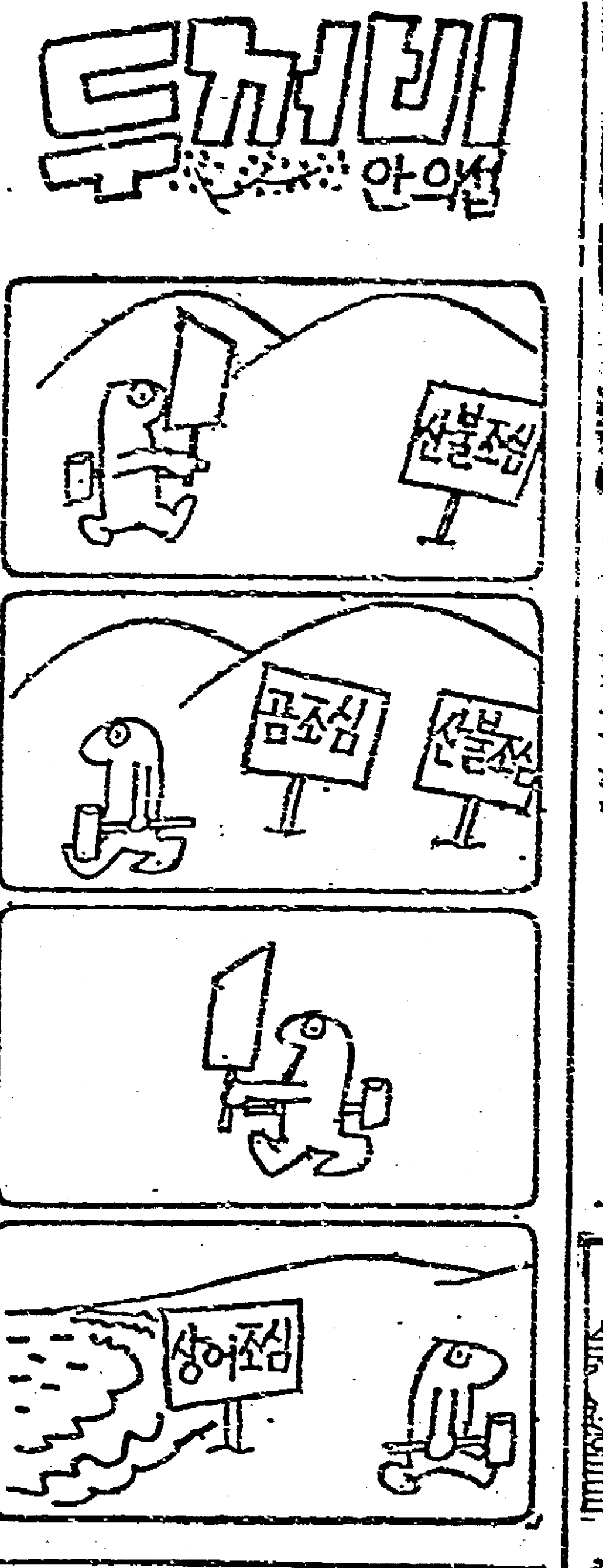


食人상어 海女 물어갔다

머리 놓치자 2차 허리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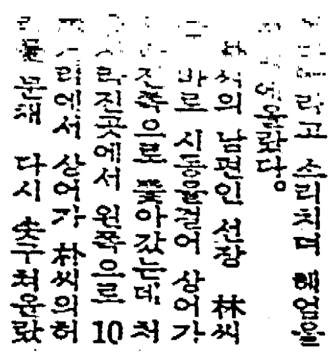
瑞山 安眠島 남편이 던진 쇠창끝 흰채 사라져

【安眠島=林英茂·方鉉國기자】23일 하오1시30분께 충남 瑞山郡 [illegible] 外島 남쪽2백m 해상에 길이 6m의 식인상어가 나타나 전복을 따던 해녀 朴庚順씨 (29·瑞山郡 安眠邑承彦里8區1492)를 물고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海水浴철 앞두고 「조스」恐怖

6m 넘는 大型…22일에도 나타나

◇아내잃은 林선장 상어에 아내를 잃은 현동호 선장 林宗洙씨가 사고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있다. (뒤편에 현동호가 보인다)



◇상어에 물려간 해녀 朴庚順씨

사고당시 朴씨와 짝을지어 작업중하던 鄭판順씨(31·承彦里8區134)에 따르면 이날 11번째 잠수를하여 수심2·5m에서 해삼과 전복을 따올리던 상반신이 솟아올랐을때 3m뒤에있던 朴씨가 비명을질러 돌아보니 상어가 朴씨에게 입을벌려 덤벼들고 있었다.

鄭씨가「악」하고 소리치는순간 朴씨는 이미상어에물려 그대로 바다 물속으로 끌려들어갔다.

鄭씨는 30m거리에 떠있던 현동호(5·5톤)선장 林宗洙(32)를 향해「상어다」라고 소리치며 헤엄을쳐 올라왔다.

朴씨의 남편인 선장 林씨가 바로 시동을걸어 상어가 간쪽으로 쫓아갔는데 처음 사라진곳에서 왼쪽으로 10m 거리에서 상어가 朴씨의허리를 문채 다시 솟구쳐올랐다. 그순간 林씨는 갈고리가 달린 길이 5m짜리 삿대로 상어의배를 후려쳤으나 상어는 林씨의갈고리를 배에꽂은채 그대로물속으로사라졌다.

林씨에의하면 상어는 길이가 6～7m가량으로 4톤크기의어선만큼 커보였으며 잠간 떠오른 상어의 흰배가 직경1m, 물위에 떠오른 등지느러미도 길이가2m 높이50㎝정도 였다는것.

林씨는 상어가 처음朴씨의 머리부분을 물었을때 고무모자가 벗겨지는바람에 놓쳤다가 다시 허리를 문것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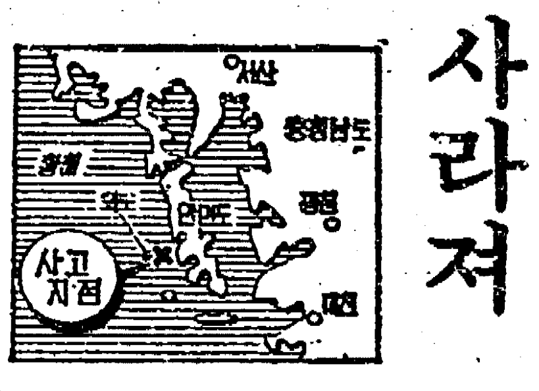
남편 林씨는 朴씨를물고있는 상어를 찾기위해 반경5백m바다위를 헤맸으나 상어는물론朴씨조차찾지못했다.

林씨는 사고장소에서 1㎞떨어진곳에서 조업중이던 신성호 (선장 송인환·36, 8·04톤)에 도움을 요청, 함께 수색작업을편에 하오2시께 朴씨가썼던 잠수모와 물안경을발견했는데 잠수모에는 날카로운 상어이빨자국이 4개나 있었다.

사고당시 인근에는 17명의 해녀들이 해삼을 채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어가 朴씨를 물고간뒤 모두 현동호로 철수했다.

한편 林씨일행이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던 이날하오3시께 사고 지점에서 북쪽으로 2·5㎞떨어진 承彦里4區앞 분두리항으로 입항중이던 4톤급 어성호 (선장 정일봉·51)가 찢어진 잠수복상의와 신체의잔해일부를발견했다.

어성호선장 정씨는 이잔해가 朴씨의것으로 판단, 林씨에게 알려 이날하오3시30분 承彦里8區 방포항으로 일단 철수했다.



해녀들을 내린 林씨는 상어를 잡기로 결심, 동료들과 함께 다시 잠수기선 6척과 해녀운반선 5척등 모두 11척의 배로 바다로 나가 2시간동안 찾아다녔으나 실패하고 길이 3백m짜리 그물 2개를 해류가 흐르는 양쪽 지점에 설치해둔채 철수했다.

한편 식인상어출현 소식은 承彦里8區주민들을 즉각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인근해역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어선들이 모두 철수하는가하면 해녀10여명은 다음날 짐을싸 濟州島로 아예 떠나버렸다.

한편 주민들에 의하면 사고나기 하루전인 22일과 사고당일 상오 11시께에도 外島부근에 6～7m크기의 상어와 4m짜리등 상어 2마리가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를아는 몇몇주민들은 현동호가 조업을 나설때 상어가 나타났다고 소리까지 쳤으나 현동호에서 이소리를 듣지못하고 그대로 나갔다는것.

주민들은 상어떼가 한번 피맛을 봤기때문에 떠나지않고 계속 인근 해상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언제 또나타나 사람을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때문에 바다쪽을 쳐다만보면서 배를 묶어두고있다.

承彦里이장 崔鍾律씨(38)는「생전처음 당하는 일이라 사지가 떨린다. 상어가 한번 나오면 3년간맴돈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어디서 또나타날지몰라 어민들은 생업을 놓은 상태다」며 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조업을 다시할수있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承彦里에는 1백1가구 5백37명 주민중 62가구가 해산물채취업에 종사하고있는데 해녀수송선5척과 머구리잠수기선6척으로 매년4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해삼과전복을따 3～4억원의 연간소득을 올리고 있다는것.

하루조업중단으로 어민들은 6백여만원의 손해를 입고있다고 억울해했다.

연포, 大川, 만리포, 방포등 서해안일대 해수욕장상인들도「상어의공포가 계속되면 피서객이 오겠느냐」며 벌써부터 울상을 지었다.

연안에서 상어에의한 인명피해는 20년전 大川앞바다에서 대학생 1명이 상어에 물려 죽은사고가 있었지만 6m이상의 대형식인 상어가 연안에 접근하기는 이번사고가 처음이다.

장례식 2백명참석

한편 숨진朴씨의 장례식이 25일 상오10시 承彦里8區어촌계회관에서 읍장 朴允秀(54), 해녀대표 高春子씨(43)와 주민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도없이 치러졌다.

固城 三千浦 火電공사장서

火藥폭발…3명死亡·실종

水中암반 폭파…潛水夫 참변

14명 重輕傷

【三千浦=金庸際기자】화력발전소 건설공사장 바지선 위에서 수중폭파작업을 준비하던 화약반장이 폭발물을 소홀히 다루다 터지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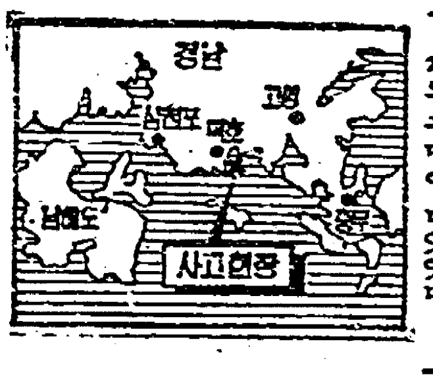
25일하오2시45분께 慶南固城郡下一面德湖里앞바다에서 삼천포 화력발전소건설공사현장에서 수중폭파작업을 준비중이던 1백t급 바지선(길이20m, 폭4m) [illegible]장 박선권씨 (36·三千浦市[illegible]185)가 뇌관을 연결하다가 취급부주의로 화약이 터져 폭발, 감독서기사 윤민식씨(30·居昌郡南下面屯馬里677)가 현장에서 숨지고 박씨를포함한 잠수부등 3명이 실종됐으며 14명이중경상을입고晉州한일병원등에서치료를받고있다.

삼천포화전 시공자인 한라건설로부터 수중암반 폭파공사의 하청을받은 흥우산업은 지난 79년부터 공사를 해왔는데 삼천포화전에 10만톤규모의 유연탄 저재항을 건설시키기위해 수심15m를 17m～20m의 깊이로 준설하고있었으며 수심중간에 있는 암반을 제거하려고 4번째 폭파에이어 마지막 작업용 폭약을 준비하다가 사고를 당한것이다. 사고당시 현장엔 평화호외에 장흥2호, 3호(3백톤)중 바지선 3척이 1백m 간격으로 벌어져 각각하루 5차례씩 수중폭파작업을 벌여왔는데 폭파작업에는 약60명이 동원되고있으나 이중 화약취급인가를 가진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사고가난 바지선은 이3척의 바지선중 해안에서 가장 멀리떨어져 작업하던 바지선이었는데 배밑 철판에 직경 2m의 구멍이 나있었다.

바지선 평화호에는 잠수부9명, 조수8명 폼프레서기사1명 선원및 잡부3명등 모두21명이 타고있었는데 화약반장 박씨가 다이너마이트 62.75㎏을21개 폭약으로나누어 뇌관을 연결하다 잘못건드려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병천씨등 14명은 晉州한일병원, 반도병원, 제일병원등에분산, 가료중이나 이중 5명은 중태인데 대부분 폭약이 터질때의 폭음때문에 고막이 터져 귀에서 피를흘리고 있었다.



恐怖의「백색爆藥」

사고화약

수중폭파용으로 사용되는폭약은 지상에서 사용되는 다이너마이트보다 폭발속도가 약5천피트 빠른 백색폭약(플포선)으로 주로시계가 어둡고 작업이 까다로운 해저작업에서 쓰인다.

그런데 이백색폭약은 가벼운 충격에도 터질우려가있어 외국에서는 직접뇌관에 연결하지않고 도폭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을 벌기위해 직접연결, 위험했다는 지적이다.

死傷·실종자 명단

◇사망자

◇윤민식 (27·경남居昌郡 南下面 분하린)

◇실종자 ▲박석권(35·경남固城郡 下二面 月興里186) ▲김석운(43·경남三千浦市西洞107의1)

◇부상자 ▲양찬완(26) ▲이병천(27) ▲조창길(20) ▲노설봉(28) ▲황유명찬(25) ▲원학성(27) ▲김양승백(24) ▲김호식(37) ▲김효정규(24) ▲박석윤(24) ▲배금도(35) ▲윤기환(25)

석방자再犯率 1.67%

「善導조건 기소유예제」 큰성과

대검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소년범재범방지에 큰효과를 거두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의하면 지난 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3천7백59명의 소년범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했는데 이가운데 재범자는 63명으로 재범률이 1.67%에 불과, 지난해 전체범죄기소유예자 재범률 4.8%와 소년범기소유예자 재범률 7.4%에비해 훨씬 낮은것으로 밝혀졌다.

在美독립有功者 梁柱殷옹에 膳物

全大統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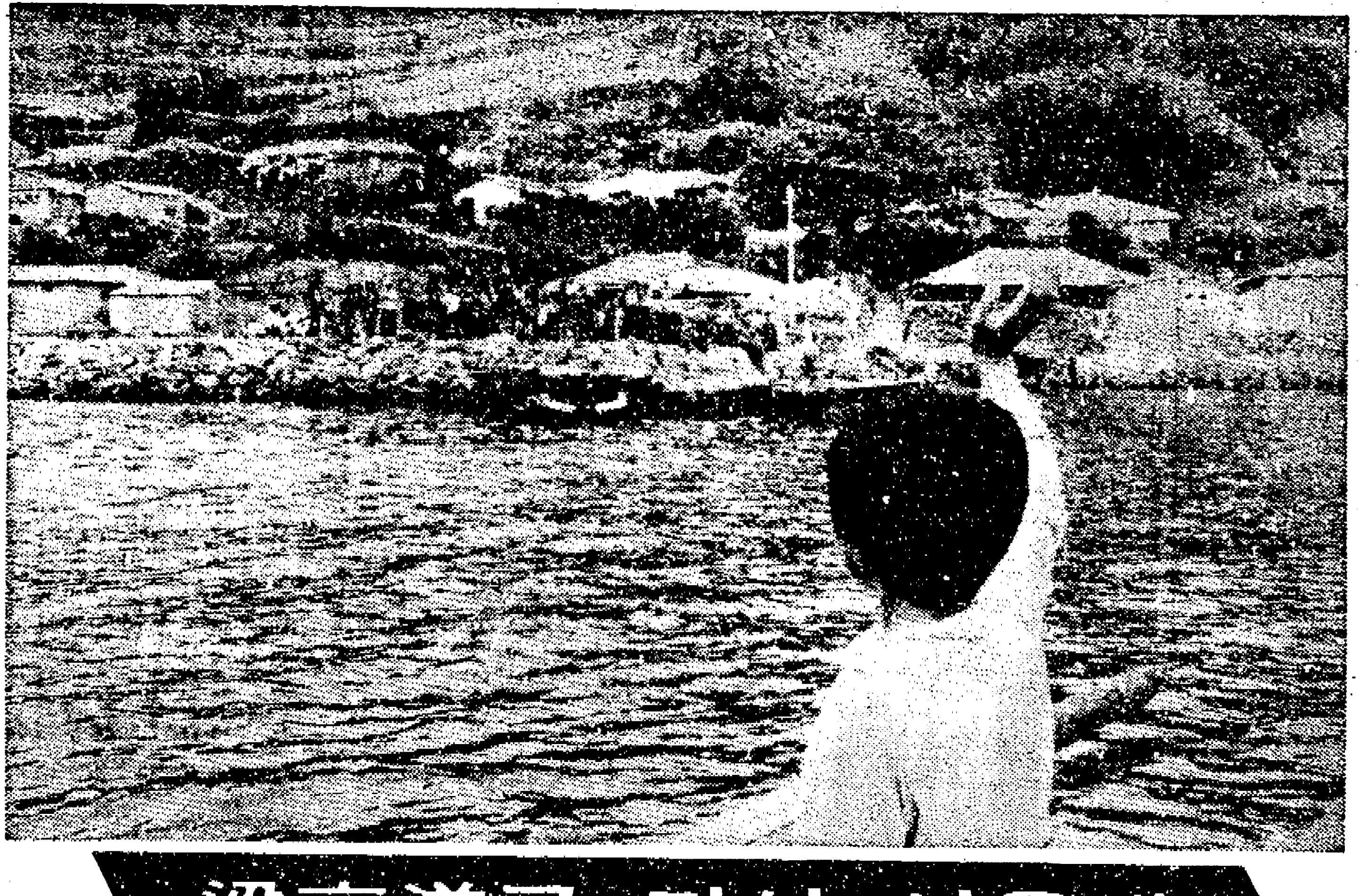
全斗煥 대통령은25일 독립有功者이며 현재 在美동포인 梁柱殷옹(샌프란시스코居住)의 1백4회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내 조국光復을 위해 헌신한 梁옹의 공로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 駐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통해 생일선물로 홍삼과 손목시계를 梁옹에게 선물했다.

지난 74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牡丹章을 받은 梁옹은 한국인으로는 처음 미국으로 移民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李承晩 전 대통령, 安昌浩선생등 在美독립운동가들을 도왔고 교민들 善導에 앞장서 왔다.

구독신청 ⑦⑤5566 6634
배달사고 ⑦④6635 7397

과식·소화불량에
베스타제
종근당



◇온 주민의 환송을 받으며 수술을 받기위해 서울로 떠나는 亨道군. 於蘭島주민들은 선착장에 나와 亨道군의 배가 보이지 않을때까지 전송의 손을 흔들었다.【白炯寬기자찍음】

梁亨道군 다시 서울에

溫情 밀물속 手術받으러

梁亨道군(11)이 심장수술을 받기위해 서울에왔다.

23일하오 서울을 떠난 漢陽大앰뷸런스는 왕복 3천6백리의 긴 여행끝에 24일하오 9시10분 亨道군을 서울에 싣고와 漢陽大병원에 입원시켰다. 亨道군은 1주일동안 예비검사를 거친후 내달3일 수술을 받게된다.

한편 於蘭국민학교 柳慶의교장(55)과 亨道군의 아버지 梁相俊씨(46·어업)는 26일 상경한다.

亨道가 섬을 떠나던 24일 상오11시30분 배웅나온 섬주민들은 꼬깃꼬깃 구겨진 돈을 손에쥐어주며 하루빨리 건강해져돌아올것을당부했으며 몇달동안의 작별도 아쉬운듯 흐느껴우는 여인들도있었다.

亨道군이 탄 앰불런스가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忠武, 馬山등 시민들은 亨道를 보고「기운을 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忠武시교육청, 統營郡및 龍南面도 亨道군을 돕기위한 모금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10면

權奇淳씨도 誠金

심장병의 梁亨道군의 치료비에 보태써달라며 서울江南區盤浦洞399의2 權奇淳씨가 25일 1만원을 본사에 기탁해왔다.

劇作家 李瑞求씨

극작가 李瑞求씨(사진)가 25일 상오6시30분 서울龍山區東氷庫洞 [illegible]아파트 A1호 자택에서 83세로 별세했다.

19세기 마지막해에 태어난 李씨는 1920년 東亞日報기자와 朝鮮日報기자를 거쳐 26년에 土月會 尹白南씨등과 함께 劇團[illegible]를 창립, 그후 극예술에 일생을 바쳤다.

한국무대예술원장, 한국극작가협회장(45년), 방송협회이사장(50년)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風俗劇「[illegible]」와「해빛쏘아지는 벌판」「江華道令」「尙宮나인」「민며느리」등의 영화·방송드라마및 무대드라마가있다.

27일상오9시 明洞성당에서 영결미사가 있으며 장지는 경기도 始興郡 秀岩面의 선산이다. 유족으로 2남4녀와 부인 金仁玉씨(65)가 있다.

나이팅게일 기장 李成玉씨로 선정

적십자국제위원회(ICRC)는 25일 李成玉씨(59·여·서울高麗병원 간호과장)를 올해 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로선정했다고 韓赤에 알려왔다.

뒤바뀐 旻見·香美양 낳은 엄마품에 안겨

낳은정·기른정 시비를 빚었던 雙童 旻見·香美양이 각각 낳은엄마품에 안김으로써 일단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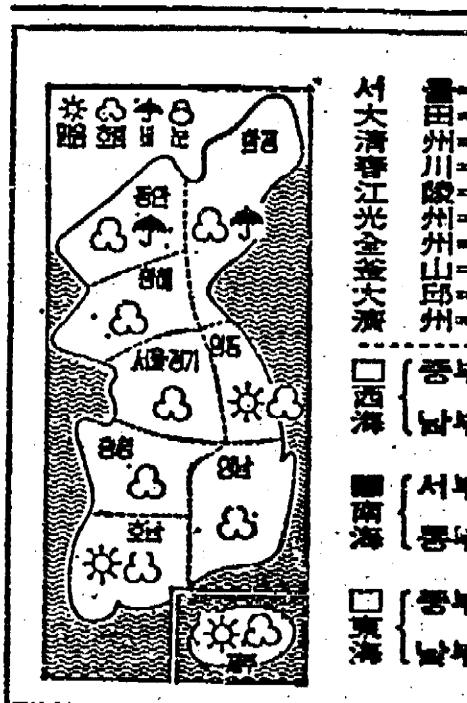
쌍동이 旻京·香美양의 부모와 旻見양의 부모는 25일 하오9시 KBS 제2TV「9시에 만납시다」프로에나와 지난13일 교환의 전제조건이었던 친자확인과 旻見양에 대한 병원측의 치료보장이 끝남에따라 이날 쌍둥이엄마 金玉烈씨(30)와 李貞淑씨가 旻見양과 香美양을 바꿔 안았다.

오늘의 날씨 <26日>

흐리거나 구름다소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구름이 다소 끼겠다. 낮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년보다 높겠으며 해상의 파도는 서해와 동해에서 다소일겠다.

日出 5·15 日沒 19·43
月出 0·41 月沒 11·22
仁川만조 9·40 22·09
간조 3·12 1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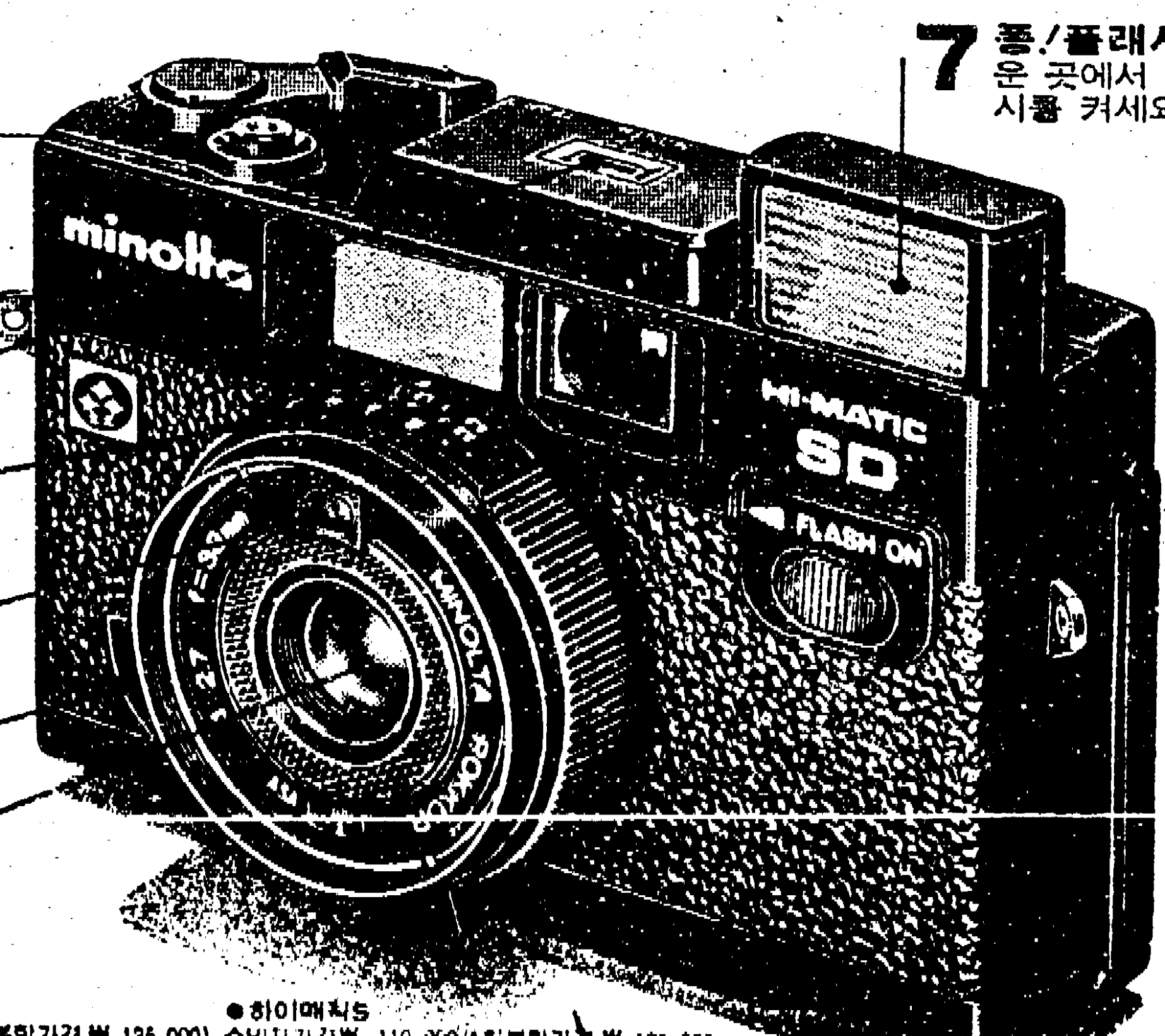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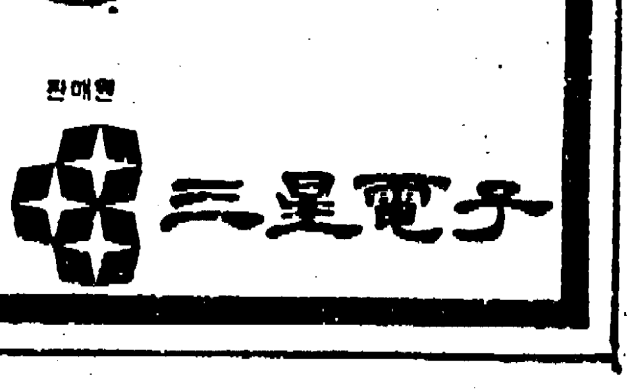


			(어제기온)
서울	가끔흐림	16～26	(16～24)
大田	〃	15～27	(15～27)
淸州	〃	14～27	(14～27)
春川	〃	14～27	(14～28)
江陵	〃	14～28	(14～21)
光州	차차흐림	17～29	(17～29)
全州	〃	16～28	(16～27)
釜山	〃	16～25	(16～21)
大邱	〃	15～30	(15～29)
濟州	〃	19～25	(19～27)

西海	중부	남동후남서풍 6～9m 파고1～1.5m	가끔흐림
	남부	남동후남서풍 8～10m 파고1～2m	차차흐림
南海	서부	남동후남서풍 8～10m 파고1.5～2m	차차흐림
	동부	남동후남서풍 8～11m 파고1.5～2m	차차흐림
東海	중부	남동후남서풍 8～10m 파고1～2m	가끔흐림
	남부	남동후남서풍 8～11m 파고1.5～2m	차차흐림

머리가 빠질때
케이-5

지금 1/2만원만 내시고 三星미놀타 카메라를 가져가십시오!
전화주문즉시배달
三星Minolta
청계영업부(주남사)
㉓1772㉘1466 주·야㉝8528
부산㉒1055 마산③2709

요즘 가장 인기있는 카메라 — 三星미놀타 하이매틱

1 추억의 그순간을 날짜로! 몸체 뒷 부분에 부착된 크리크를 조절하면 추억의 그 장면에 날짜가 찍힙니다.
2 경치강조? 인물강조? 三星미놀타의 파인더 안에는 거리 표적을 나타내는 그림표시가 있읍니다. 경치를 강조할 때는 ▲마크에, 인물을 강조할 때는 ♀마크에 거리표적을 맞추세요.
3 노출이 자동 - 거리만 맞추세요 거리표적만 맞추면 조리개와 셔터는 자동 조절되어 노출과 셔터 속도를 맞추실 필요가 없읍니다.
4 자동셔터를 이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자동 셔터를 조절해 놓으면 찍는 분도 함께 찍으실 수 있읍니다.
5 렌즈는 세계일급 로코렌즈 三星미놀타 하이매틱의 렌즈는 세계의 카메라 전문가들이 첫손을 꼽는 로코렌즈 입니다. 확대인화를 해보면 그 뛰어난 해상력을 확인할 수 있읍니다.
6 필름이 들어있나? 필름이 들어 있으면 필름창에 오렌지색 마크가 나타납니다.
7 쫑! 플래시를 켜세요 실내나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는 내장된 플래시를 켜세요.

minolta HI-MATIC SD FLASH ON

전자식 자동카메라로 바뀌고 있는 세계의 카메라 추세, 무겁고, 크고, 비싸야 제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카메라가 소형 경향화를 보여주고 있읍니다. 三星미놀타 하이매틱은 이 같은 추세에 맞는 자동촬영기능과 간편성 때문에 가장 인기있고 많이 팔리는 카메라가 되었읍니다. 카메라의 뉴패션— 三星미놀타 하이매틱.

■세계적인 최고급 카메라 미놀타 XD-5국내도입판매.
국내에 아직 보급이 안된 최고급 카메라로서 세계의 사진전문가들이 격찬하는 미놀타XD-5를 三星電子가 드디어 국내 도입에 성공했읍니다. 일본 미놀타가 개발한XD-5카메라는 조리개 및 셔터 양우선 방식을채택하여 일본 및 세계 카메라계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카메라중의 카메라입니다.

三星Minolta카메라

●하이매틱SD 소비자가격 ₩120,000(5회분할가격 ₩135,000)
●하이매틱S 소비자가격 ₩110,000(5회분할가격 ₩125,000)

제조원 三星精密
판매원 三星電子

●전국대리점 및 소비자보호지정점
●충남지역 ○천안·천안센타 8096 ○대전·삼성미놀타상사 2-8854
●충북지역 ○충주·충주미놀타카메라 4992
●전북지역 ○전주·삼성사 2-5167 삼성미놀타상사 2-6887 ○이리·동광전자 2-3694·5186
●전남지역 ○광주·삼성전남특판상사 56-9198 55-9233 ○여수·삼성특수기기판매상사2-4670
●경북지역 ○대구경구·아도안맨 45-7339
○대구동성로·시민소리사44-7391~3 ○대구남산·대림양행 24-6122 ○구미·삼성미놀타구미전문점2-2274
●부산지역 ○서면·광학사 66-3433 ○동래·삼성전자상사(주) 63-6422 52-4400
●경남지역 ○마산·마산카메라 2-8480·8504 ○진주·신광사 2-4307 ○울산·세기전파사 2-3778